

보도자료



보도일	2013. 6. 17(월) / 제한없음		
배포일	2013. 6. 17(월)	홍보담당	기획처 홍보팀 (880-5054, 9072)
담당부서	국제협력본부	문의	황정남 실장(880-8637)

제 목: '서울대학교-베이징대 한·중 미래포럼' 개최 - '새로운 한·중관계 미래를 위한 지식인 사회와 대학의 역할' 주제로 6월 17일(월) 베이징대에서 열려

- 서울대학교는 한·중 관계의 미래를 모색하여 양국의 우호 증진에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베이징대와 '새로운 한·중관계 미래를 위한 지식인 사회와 대학의 역할'을 주제로 『서울대학교-베이징대 한·중 미래포럼 (Academic Dialogue)』을 2013년 6월 17일(월) 베이징대에서 개최한다.
-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 오연천 총장과 정종호 국제협력본부장, 정치외교학부 정재호 교수와 베이징대 왕언거(王恩哥) 총장, 리안송 부총장, 왕이조우 국제관계학원 교수 등이 참석한다.
- 오연천 총장과 올해 3월 취임한 왕언거 총장은 대담을 갖고 미래시대 지식인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고, 대학간 연석회의 확대 및 아시아 선도대학으로서의 공동연구 등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.
- 또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한·중관계 최고 권위자인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왕이조우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한·중 수교 이후 양국의 발전에 대한 평가와 미래지향적인 한·중 관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

□ 서울대는 한·중관계의 우호 증진 및 대학간 학술교류 확대,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의 일환으로 2011년 8월 베이징에 ‘서울대 중국센터’(SNU in China)를 설립하고 SNU in Beijing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. 이어 2012년 5월 한·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‘서울대(SNU) - 북경대 (PKU) 학술교류 확대를 위한 연석회의’를 베이징대에서 개최하였다. 연석회의에는 양 대학의 총장과 단과대학 학장, 보직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수 및 학생 교류 등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. 9월에는 한·중 교류의 미래를 공유하고, 우호적인 한·중 학술교류 확대하고자 ‘한·중 수교 20주년 기념 서울대 중국유학생 초청행사’를 개최하였다.